

# 지자체 청렴도평가 '보성군' 유일 1등급... '나주시' 최하위

권익위, 광주·전남 지자체 평가  
광주 5개 자치구 대부분 2~3등급  
보성군, 3년 연속 청렴도 '1등'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광주·전남 27개 기초자치단체의 결과가 극명히 엇갈렸다.

보성군은 지역 유일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지만 나주시는 유일한 5등급 '꼴찌'를 기록했다. 광주 5개 자치구 중에선 대부분 2~3등급으로 선전했지만 서구가 4등급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의 종합청렴도에선 보성군이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다. 2019년 이래 3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이다.

반면 나주시는 광주·전남 유일 종합청렴도 5등급의 불명예를 안았다.

〈광주·전남 기초 지자체 2022년도 종합 청렴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1등급	보성군		영광군 광주 북구
2등급	곡성군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해남군 광주 동구 남구 북구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보성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해남군 화순군 광주 동구 남구 광산구
3등급	광양시 목포시 여수시 고흥군 구례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화순군	강진군 영광군 영암군 함평군 해남군	광양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강진군 고흥군 구례군 담양군 무안군 영암군 진도군
4등급	순천시 강진군 무안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광주 서구	목포시 여수시 고흥군 무안군 완도군 장성군 화순군 광주 서구	나주시 곡성군 신안군 함평군
5등급	나주시	광양시 나주시 순천시 장흥군 진도군	

청렴체감도 5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으로 모두 낙제를 받았다.

곡성·담양·영광·장성·해남 등 5개 군은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해남은 5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기록했다. 담양은 3년 연속, 곡성·영

광도 2년 연속 2등급을 기록, 도내 기초지자체 중 청렴도 상위권을 유지했다.

장성은 1년 전 3등급에서 한 계단 상승했다. 영광은 청렴노력도 평가에서 도내 유일 1등급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종합청렴도 3등급에는 광양·여수·목포 등 3개 시와 고흥·구례·신안·영암·완도·화순군 등 6개 군이 이름을 올렸다.

하위권인 4등급에는 순천시와 5개 군(강진·무안·장흥·진도·함평)이 포함됐다. 순천은 2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에선 간신히 탈출했지만 청렴체감도 면에선 5등급으로 전국 꼴찌다.

광주 기초자치단체 중 종합청렴도가 가장 높은 자치구는 2등급을 받은 동구와 남구, 북구였다.

광산구는 종합청렴도 3등급을 기록했다. 서구는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광주 5개 자치구 중 꼴찌다.

한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설문조사 결과) 60%와 청렴노력도(정량·정성평가) 40%를 가중평균한 뒤 부패실태·신뢰도 저해행위 등 감점 요인을 반영, 산정한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울산시

####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 개최

울산시는 26일 시청사에서 김두겸 시장,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심의,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등의 역할을 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3년 울산시 청년정책 시행계획'과 '청년 위촉대상 위원회 선정' 등 2개 사업 안건을 심의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울산=이도식 기자

### 여수시

#### 수소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여수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수소 산업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수소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25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 대수는 200대로 수소차(현대자동차 넥쏘) 신규 구매 시 대당 3750만 원의 구매 보조금이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여수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자 단체이며, 전체 물량의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구매,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택시, 노후 경유차를 수소차로 대체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수(전남)=김용학 기자 jjacecom@

### 부산교육청

####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확대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유치원에 자원봉사 인력을 지원해 유아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이 사업은 40대 이상 여성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해 세대 간 유대관계 형성을 통해 유아의 안정감을 증진하고, 유치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다.

자원봉사 인력은 책 읽어주기, 놀이 활동 보조 등 교육활동 지원을 통해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 신안군

#### 독거노인 1300명에 긴급난방비

신안군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독거노인 1,300여 명에게 동절기 한파에 따른 긴급 난방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과 경제 위기, 한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독거노인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를 긴급지원했다.

신안군 저소득 독거노인 1,300여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총 2억 5,000천만원의 지역 상품권을 구입하여 따뜻한 설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부도 확인했다.

/신안(전남)=안행주 기자 abcd@

## 중소·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

# 전남도, 4500억 금융 지원

운영자금 3800억, 시설자금 700억  
3개월 이상 가동중인 중소기업

전남도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이른바 '3고 시대' 악조건으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융자 규모는 총 4500억원으로 분야별 지원 금액은 운영자금 3800억원과 시설자금 700억원이다.

융자 지원 대상은 전남도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과 도내 소재 소상공인이다.

운영자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차료·인건비·연구개발비로, 시설자금은 공장 증·개축이나 기계설비 등 시설투자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 소상공인

은 최대 2억원을 시중은행에서 운영자금으로 대출하면 전남도가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상황 방식에 따라 2년 거치 일시 상환은 2.0~2.5%,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은 1.1~1.4%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전남도가 조성한 자체 기금을 통해 최대 8년 동안 5억원에서 20억원까지 저리로 시중은행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은 2.5%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그 밖의 기업은 3.3%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코로나19 사태 3년의 긴 터널과 최근 대내외적 어려운 경제상황의 난관에 놓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실이 녹록치 않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 해남군, 청년정책 4개 분야 223억 투입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 지원

해남군은 올해 청년정책으로 4개 분야에 223억원을 투입해 청년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주거, 일자리·창업, 문화, 복지 등 47개 사업으로, 군은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팀을 신설하고, 주거와 일자리, 문화에 이르는 각종 청년 정책들을 총괄 추진해 청년세대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올해 신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사업은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으로 151억원을 투입한다.

청년공공임대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으로 9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연립주택 3동, 60세대 규모로 2025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남군은 청년 주거지원 정책으로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 임대주택(빈집) 수리비 지원사업,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증자리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2022년 밀양초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완료 모습. /밀양시

## '밀양다운 도시경관 프로젝트' 추진

30억 예산 들여 도시디자인

밀양시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시민 중심의 배려와 편의를 실현하기 위해 2023년에도 약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경관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 가로경관 개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등 밀양다운 도시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추진

한다.

우선 민선 8기 박일호 시장 공약사업인 '밀양다운 도시경관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착수했다. 도심 지역의 밀양다운을 표현한 가로경관 개선으로 시민이 쾌적하고 관광객이 찾아오는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린다. /밀양(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 사천시, 미세먼지 저감에 팔 걷는다

친환경경차 보급 등 추진

사천시는 미세먼지 걱정없고 맑고 푸른 청정도시 사천 조성을 위해 '2023년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84억원의 예산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장 및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어린이통

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배출가스 5등급에서 배출가스 4등급까지 확대했다.

또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전기차(300대), 수소차(30대), 전기이륜차(50대) 등 총 380대에 대한 구매 지원을 할 예정인데, 약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총사업비 60억원으로 올해 사천일반산업단지 내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뒷받침한다. /사천(경남)=이도식 기자